

## 연중 제33주일 (11월 13일)

### 성전파괴 예고와 재난의 시작 (루카 21,5-19)



**성전 파괴** (니콜라스 푸생, 1637년, 유채, 비엔나 미술사 박물관, 오스트리아)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인내로써 생명을 얻어라.” (루카 21,17-19) 하느님께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생명의 복음을 주셨기에 우리는 생명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생명의 복음을 선포할 때 수많은 반대와 미움을 받겠지만 두려워해서는 안됩니다. 죽음과 부활로 세상을 이긴 그리스도에게서 힘을 얻는 우리는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영현 시몬 신부(서울대교구) (출처: 서울주보, 2013. 11. 17.)

### 시작성가

| 진행자 | : 가톨릭 성가 29번 “주 예수 따르기로” 1,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 주님 초대하기

| 진행자 | :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시어 저희를 이끌어 주소서.  
- 주님, 저희를 이끄시어 당신의 사랑안에 머물게 하소서.

### 하느님 말씀

| 진행자 | : 한 분이 루카 복음 21장 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 5 몇몇 사람이 성전을 두고, 그것이 아름다운 돌과 자원 예물로 꾸며졌다고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6 “너희가 보고 있는 저것들이,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 있지 않고 다 허물어질 때가 올 것이다.” 7 그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스승님, 그러면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그 일이 벌어지려고 할 때에 어떤 표징이 나타나겠습니까?” 8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는 속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또 ‘때가 가까웠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들 뒤를 따라가지 마라. 9 그리고 너희는 전쟁과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문을 듣더라도 무서워하지 마라. 그러한 일이 반드시 먼저 벌어지겠지만 그것이 바로 끝은 아니다.” 10 이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나며, 11 큰 지진이 발생하고 곳곳에 기근과 전염병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무서운 일들과 큰 표징들이 일어날 것이다. 12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앞서, 사람들이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할 것이다. 너희를 회당과 감옥에 넘기고, 내 이름 때문에 너희를 임금들과 총독들 앞으로 끌고 갈 것이다. 13 이러한 일이 너희에게는 증언할 기회가 될 것이다. 14 그러나 너희는 명심하여, 변론할 말을 미리부터 준비하지 마라. 15 어떠한 적대자도 맞서거나 반박할 수 없는 언변과 지혜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16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까지도 너희를 넘겨 더러는 죽이기까지 할 것이다. 17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18 그러나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19 너희는 인내로써 생명을 얻어라.”



| 진행자 |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 진행자 |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 “너희는 속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또 ‘때가 가까웠다.’하고 말할 것이다. 그들 뒤를 따라가지 마라”(루카 21,8)

위 성경말씀과 비슷한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루카 21,17)

신앙 때문에 어려움에 처했던 경험과 극복한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주십시오.  
주님의 자비를 굳게 믿으며 주님께 자비를 청하는 기도를 즐겨 바치십니까?

| 진행자 | :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 한걸음 더 나아가기

| 진행자 |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신성로마제국의 황제로 등극하여 강력한 왕권을 확립했던 프리드리히(Friedrich I, 1123-1190) 대왕, 그는 온갖 악을 저지르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밤 천사가 나타나 그의 죄악을 낱알이 지적해주더니 숫자 `6`을 일러주고는 떠나갔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왕은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쳤습니다. 그리고는 천사가 알려준 숫자를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어느 순간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 이제 내게 남은 시간이 여섯 시간밖에 없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결론 지은 왕은 여섯 시간 동안 회개와 선행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여섯 시간이 지났는데도 죽지 않자 여섯 시간이 아니라 6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왕은 다시 6일을 6주간으로, 6주간을 6개월로, 6개월을 6년이라 믿으며 선행하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6년을 산 프리드리히는 여전히 죽지 않았지만 선행으로 굳어진 그의 삶은 이미 성인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송현신부)

교회는 전례력으로 마지막 주간인 34주간이 가까워오면 한해를 마무리 하면서 종말에 대해 묵상하게끔 복음을 통해 도와줍니다. 복음에서 예수님은 성전 파괴 예언과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될 종말의 징조에 대해 성경의 전형적인 묵시묵학적 표현으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사칭, 전쟁, 재난, 기근, 전염병, 박해 등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종말이 곧 도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이런 현세의 어려움 속에서도 불안에 떨며 가짜 그리스도에 현혹되어 따라갈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그리스도께 희망을 두며 그분의 증인이 되어 인내하며 살아갈 때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박해가 없지만 수많은 기상이변과 전쟁, 재난 등으로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흔들리지 말고 주님께 희망을 두며 마지막 때를 생각하고 하루하루 하느님 뜻에 따라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 생명의 말씀 정하기

| 진행자 | :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 말씀 살기

| 진행자 | : 지난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 진행자 | : 이번 달에 우리 소공동체가 ‘생명의 말씀’을 살기 위해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의논해 봅시다.

### 마침기도

| 진행자 |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 마침성가

| 진행자 | : 가톨릭 성가 29번 “주 예수 따르기로” 3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